

KEDI 엔비디아고정테크100 지수 산출방법 (Methodology Book)

May 2025

1. 지수 소개

- A. 본 문서는 KEDI 엔비디아고정테크100 지수(KEDI NVIDIA Fixed Tech100 Index)를 산출하고 관리하는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.
- B. 본 지수는 KEDI 미국테크100 지수를 기반으로, 해당 포트폴리오에서 엔비디아 종목의 비중을 25%로 편입하고, 75%의 비중은 엔비디아 종목을 제외한 기존 KEDI 미국테크100 포트폴리오의 종목을 유지하며 조정한 지수입니다.
- C. KEDI 엔비디아고정테크100 지수는 가격지수(Price Return) 입니다

| 구분 | 기준일 | 기준지수 | 발표일 | 산출시간 | 리밸런싱 주기 |
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
| 일반전략지수 | 2019.01.02 | 1,000pt | 2025.05.29 | 8:30AM (KST) | 월간 |

2. 지수 구성 방법

- A. **엔비디아 주식 매수**
엔비디아(NVIDIA Corporation: NVDA) 주식을 매수합니다.
- B. **KEDI 미국테크100 지수 종목 매수**
KEDI 미국테크100 지수 종목 중 엔비디아를 제외한 모든 종목을 매수합니다.
- C. **개별 종목의 편입 비중 산정 방식**
 - 엔비디아의 비중을 25%편입합니다.
 - KEDI 미국테크100 지수의 엔비디아외 잔여 종목의 비중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:

$$\text{조정 비중} = \frac{\text{개별종목의 기존 비중}}{\text{잔여비중}} \times 75\%$$

$$\text{잔여비중} = 100\% - \text{KEDI 미국테크100 지수 내 엔비디아 비중}$$

3. 지수 산출 방법

- A. **지수 값의 산출**
KEDI 엔비디아고정테크100 지수는 다음 수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지수입니다. 지수 산출 기준일은 2019년 1월 2일이며, 기준지수는 1,000으로 설정하였습니다.

$$I(t = 0) = 1000$$

$$I(t) = \frac{\sum_i P_{i,t} \times Q_{i,t}}{\sum_i P_{i,t-1} \times Q_{i,t-1}} \times I(t - 1)$$

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t | 특정 시점 t |
| I(t=0): | 지수 I의 기준 값 (1000) |
| I(t): | t 시점 지수 I의 산출 값 |
| I(t-1): | t-1 시점 지수 I의 산출 값 |
| P _{i,t} : | t 시점 종목 i의 증가 |
| Q _{i,t} : | t 시점 종목 i의 보유량 |

4. 지수 관리 및 유지

A. 정기변경

- i. 모든 영업일은 미국 주식시장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ii. 비중결정일 (Determination Date): 매달 마지막 영업일 D를 기준으로 2. 지수 구성 방법에 따라 종목과 비중을 확정합니다.
- iii. 수행일 (Implementation Date): D+1 영업일 장 종료 시점에 정기 변경을 수행합니다.

B. 수시변경

- i. 합병/분할, 상장폐지 등 특정 기업 이벤트 발생에 대한 수시변경은 일반적으로 「기업 이벤트 적용 방법론」을 따릅니다. 영업 손실 등 운용 상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KEDI 지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수시변경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
- ii. 개별 종목의 편입 비중이 T-4 영업일부터 T 영업일까지(5영업일) 연속으로 30%를 초과하는 경우, T 영업일 주식시장 종료 시점 및 지수 산출 이후에 2. 지수 구성 방법 C. 개별 종목의 편입 비중 산정 방식에 따라 수시 리밸런싱을 진행합니다. T+1 영업일 수시 변경을 수행합니다.

<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>

이 문서를 포함한 KEDI(한국경제신문지수)의 지수 컨텐츠는 (주)한국경제신문과 서면동의 없이 복제, 전송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. KEDI의 지수 컨텐츠는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산출 및 공표와 관련한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. (주)한국경제신문은 KEDI 지수를 기반으로 한 제 3 자의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의견을 표명하지 않으며, 지수 이용자와 제 3 자간에 서비스를 매개하여 발생한 분쟁에 관여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. 또한 투자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실 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